

## 소유가 아닌 거주로, 철거가 아닌 상생으로

2021.10.14. 오후 3시, 서울제일교회

사회: 이은혜 간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여는기도 | 전남병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발언 1 | 이종건 사무국장(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의증언 1 | 최성혁 사장(을지OB베어)

현장의증언 2 | 김정호 이사장(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발언 2 | 정성철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발언 3 | 장기용 사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성명서낭독 | 이성철 학회장(한신대 신대원 민중신학회) 손현진솔 위원(옥바라지선교센터)

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인 기자회견 성명서

### “소유가 아닌 거주로, 철거가 아닌 상생으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 고린도후서 5장 1절

판데믹 시대를 겪어내며 죽음 앞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 거리 홈리스와 노점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단지 거리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 퇴거와 철거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판데믹 이전부터 부당한 쫓겨남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미아3구역 철거민, 을지OB베어는 각각 현대화사업,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강제집행을 당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동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도 농성도 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던 사람들이 경찰과 공무원, 용역 수백여 명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계속됐다. 고작 한 명, 두 명, 열 몇 명 남짓의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적게는 백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의 인력이 투입되는 동안 관계된 부처 어디에서도 강제집행에 대한 방역지침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묻는다. 대체 무엇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란 말인가? 거리 홈리스와 철거민, 소상공인 역시 엄연히 시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판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가? 방역정책이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홈리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했어야 한다.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건물주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통한 사실상의 폐업요구가 아닌 상생의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노점상과 상가, 재개발/재건축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철거 폭력을 중단하고 거리로 내모는 불의한 행위를 멈춰야 했다.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 생존이 아닌 연대의식이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소유'에만 초점을 맞추었기에 일어난 비극이다. 골목과 동네 곳곳에서 쫓겨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천정부지 솟는 부동산과 그것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사람들의 처지가 연일 보도된다. 그러나 개발정책은 여전히 민간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한정된 땅과 자원은 하나님께서 잘 나누어 쓰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계 보유 땅 32%가 상위 1%의 소유가 되어 막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었다.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세상, 정작 그곳에서 삶을 일궈가고 있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쫓겨나야 하는 세상에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소유'의 세상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일궈가며 골목과 동네, 도시를 만들어 가는 모든 이들의 주거가 권리가 되는, '주거권'의 세상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란 것은 없다. 우리는 이 땅의 무너질 장막집을 소유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는 철거하거나 철거되기 위해, 쫓아내거나 쫓겨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며 경쟁하고, 불안해하며 인생을 소비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더 이상 무한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은 부동산 소유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이제는 거주하는 이들, 이 땅에서 밥상을 내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모든 평범한 이들을 위해 소유가 아닌 거주로, 철거가 아닌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연대의 세상, 쫓겨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노라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근거 없는 노점단속과 코로나 위기에도 계속되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2. 퇴거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가, 주거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
3. 홈리스 표적 퇴거를 중단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라!
4.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여 세입자 주거권을 확대하라!
5. 소유가 아닌 거주로,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 정책을 확립하라!

2021년 10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질의응답 |

광고 |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장소를 내어주신 서울제일교회에 감사드립니다.